

태권도 가치 공유·발전 전략 모색

무주서 전북특별자치도 스포츠태권도 국제융합콘퍼런스 열려

2024 전북특별자치도 스포츠태권도 국제융합콘퍼런스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태권도원 도약센터 나래홀에서 개최됐다.

세계태권도연맹(WT)에서 주최·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무주군, 태권도진흥재단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스포츠 태권도의 가치 공유와 태권도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 및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세계태권도연맹 조정원 총재와 KTA 양진방 회장,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직무대행, 한국무예학회 박정현 회장, 국제대학교 포츠연맹(FISU) 이더레온즈 회장 등 태권도인 4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콘퍼런스 첫날인 6일에는 류페라 공

연과 기념식, 백석대학교 사범단 공연 등 개막식이 펼쳐졌으며 △태권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분석과 평가 고도화(장애인 태권도, 무(예)도 관련 학과, 태권도 교육의 질적 향상)를 비롯한 △거버넌스의 지속 가능한 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태권도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교육·사회·경제적 의의와 가치, 태권도원 기반의 태권도 대학 전공 및 고등학교 프로그램, 전북국제 태권도고등학교 설립) 등 2개 섹션 8개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다.

7일에는 △디지털 시대의 태권도, 전통과 혁신의 교차점(몽골 태권도·타이베이 태권도·중국 태권도·필리핀 태권도 발전 방향, SI와 태권도 융합을 통한 미래 경쟁력 강화, 태권도 시범의 근본과 미래의 방향) △디지털

시대의 태권도 미래와 발전 전략(올림픽 겨루기 품세의 정식 종목 포함, 문화대사로서의 태권도/태권도 격과 경기의 세계화, 태권도와 인공지능) 등 2개 섹션 10개 주제 발표가 이어져 관심을 모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속 가능한 인재 육성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춘 태권도 고등학교 설립의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의의와 법적 근거 등에 관한 논의가 전북 국제태권도 고등학교 설립에 큰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윈월드, 윈스포츠 태권도라는 주제에 걸맞게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태권도의 가치혁신 기반이 더욱 견고하게 다져질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수척마을 생활여건개선된다

2025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장수군 번암면 수척마을이 '2025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열악한 기반시설과 낙후된 생활환경을 가진 농어촌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농어촌 신규 대상지를 공모 신청을 했고, 장수군 수척마을이 농어촌지역 대상지로 최종 결정됐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 기초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장수군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국

비 14억원을 포함,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주택을 정비하고(슬레이트 지붕개량, 빈집철거, 집수리), 생활위생인프라개선(재래식 화장실 정비), 안전기반시설정비(노후담장 정비, 보행안전도로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공모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민 수척마을(이장 김명근) 주민들의 노력으로 좋은 결실을 얻은 것 같다. 이번 사업으로 농촌생활이 한층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큰별샘' 최태성 강사 초청 마이학당 강연

진안군은 지난 5일 진안문예체육회관에서 역사 전문가 '큰별샘' 최태성 강사를 초청해 '2024년 스타강사 마이학당'을 개최했다.

'큰별샘이 알려주는 진안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는 관내 청소년 및 군민 등 4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최태성 강사는 강연에서 "역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안의 역사와 역사적 인물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강연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평소 좋아하던 최태성 강사님의 강연을 진안에서 직접 보고, 사인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진안역사 이야기를 속에서 만나니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군 김민성 교육지원팀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누구나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깨닫고, 군민들도 지금까지 몰랐던 진안의 재미있는 역사이야기에 대해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홍삼축제' 명성 이어간다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 3차 총회 갖고 세부 내용 논의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5일 진안군청 강당에서 오는 10월 3일~6일까지 4일간 미안산 북부에서 개최되는 '2024 진안홍삼축제'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제3차 총회를 열었다.

총회에서는 축제장 배치와 세부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전 승인이 진행됐다. 안전 승인 후에는 축제 추진과 관련한 토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위원들은 2024~2025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바가지요금 근절, 친환경 축제, 사고 없는 축제 추진 등을 실천하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축제는 '세계최대 홍삼카데일

쇼'와 개막퍼포먼스로 '진안의 영광'이 화려한 막이 오를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진안홍삼김밥을 지켜라!', 진안의 인삼과 홍삼을 테마로 '蔘蔘(삼삼)한 주제관,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진안고원 트로트페스티벌', '진안군 청소년 문화축제' 등 공연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이 기다리는 '투르드 진안고원' 대회와 구름재 박병순 시조시인 선암 전국시낭송대회 '미안산의 메아리' 등이 연계행사로 열려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엔 선정된 '2024 진안홍삼



축제' 포스터는 미안산 북부의 미로공원에 영감을 받아 진안홍삼축제가 즐거움이 가득해 헤어나기 힘든 미로 같은 축제가 되길 바라는 뜻을 담아 제작된 신선한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농어촌 삶의 질 전국 '최상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평가서... 79개 군 단위 중 10위

장수군이 전국 농어촌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됐다.

지난 5일 발표된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에서 주관한 '농어촌 삶의 질' 평가에서 상위 20% 안에 드는 최상위 지역으로 선정되어 작지만 강한 장수군의 경쟁력과 위상을 알렸다.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해 농어업위에서 개발한 것으로,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공체, 환경·안전, 지역활력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된 재정지출도, 지역안전도, 사회활동 참여율 등 총 20개 세부 지표에 따라 전국 139개 농어촌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장수군은 이번 삶의 질 평가에서 환경·안전과 경제, 보건·복지 3개 영역에서 상위 20% 안에 들어 종합지수 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에 올랐다. 특히 79개 농어촌(군·구) 지자체 중에서 10위로 선정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환경·안전영역에서는 종합 2위(82.57점), 경제영역에서 종합 8위(38.24점), 보건·복지영역에서 종합 11위(50.76점)를 기록해 총 3개 영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성과를 냈다.

최훈식 장수군수(사진)는 "군민들 모두가 행복한 장수를 만들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과 군민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이번 농어촌 삶의 질 지수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것 같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장수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 누구나 살고 싶은 활기찬 장수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 머루와인' 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서 우수성 알리

무주 머루와인이 '2024 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에서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 A홀에서 개최된 '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에 덕유(구천동머루와인)와 산들벗(마지끄무주), 사포무주(사포무주), 붉은진주(붉은진주), 반딧불영농조합법인(더큰&애플)지역 내 5개 와인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사과·머루와인 11종을 출품했으며 현장에는 무주군 대표 관광명소이

자 머루와인 시음·판매처인 머루와인동굴을 형상화한 전시 공간을 조성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황인홍 군수는 "이번 박람회는 3백여 개 업체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 종합 주류&와인 박람회로 일반 소비자는 물론, 국내외 바이어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명망이 높다"며 "머루와인동굴을 알리고 머루와인을 맛 볼 수 있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이것이 소득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마케팅에 보다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는 지난 '92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해 올해로 33년째 개최되고 있으며 연간 5만 5천여 명이 찾는 등 국내 최대 종합 주류 및 와인 박람회로 정평이 나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배 검도대회 무주서 열려

지난 주말에도 무주군은 스포츠 열기로 뜨거웠다. 무주군에 따르면 제29회 전북특별자치도지사배 검도대회가 지난 6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으며 대회 참가와 관람을 위해 1천여 명이 방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검도회가 주최·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무주군, 무주군체육회, 무주군검도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 참가 선수들은 4백여 명으로, 초등부(남녀 개

인 및 단체전)와 남자 중등부, 남자 고등부, 여자 청소년(중·고)부, 남자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중·장년부, 노년부, 여자부 등 중별 개인·단체 경기에서 실력을 겨뤘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검도회 임영석 회장, 무주군검도회 이희재 회장 등 내빈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